



제목	Турецк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нца XVII - начала XIX в.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Наука
발행일	1984.
저자	Маштакова Е.И.
출판도시	Moscow
페이지수	210
ISBN 또는 ISSN	

내용 요약

『17세기 말-19세기 초 터키 문학』은 이 시기의 터키 문학의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책이다. 소아시아에서 터키 문학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은 13세기 부터였다. 중세에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로 쓴 문학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터키 문학은 이들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었고 발전했다. 터키의 중세 문학은 새로운 유형의 문학으로 변화했는데, 이런 변화는 터키 사회의 계몽주의의 발생이라는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터키와 유럽 문화의 접촉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저자는 중세와 새로운 시대 도래기에 형성된 터키 문학을 살펴 보면서, 전환기 문학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17세기 말~19세기 초 터키 문학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형을 토대로 전환기 문학의 규칙성을 살펴보고, 또한 이 문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의 시와 산문의 특징은 물론, 중세 문학에서 새로운 유형으로의 문학의 전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제1장은 중세 후기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기의 터키 문학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터키 사회와 터키 문학사에 있어서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17세기 말~19세기 초의 터키 문학의 전반적인 경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전환기 터키 문학의 주요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로, 저자는 바로 이 시기에 문학의 폭이 확대되었고, 장르 체계가 다양해 졌으며, 문학의 민주화과정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장은 문화와 이념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터키 민족문학의 형성 과정, 터키와 유럽문화의 접촉이 전환기 터키 문학발전에 끼친 영향, 문학에 나타난 계몽주의 사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